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 도내 3개 교 · 6개 학과 선정

‘을 전북글로벌컬특성화고 선정’ 남원 용성고 · 정읍제일고 · 줄포자동차공고 등
전북교육청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 대응, 경쟁력 강화 지속 노력 기울일 것”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에 3개 학교, 6개 학과가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학교로는 남원용성고 · 정읍제일고 · 줄포자동차공업고로, 3개 학교 모두 올해 전북글로벌컬특성화고에 신규 선정된 곳이다.

먼저, 남원용성고는 스마트농업 분야 강화를 위해 기존 전기제어과, 자동화 기계과, 식물자원과를 '스마트팜과'와 '카페플라워과'로 변경한다.

정읍제일고는 반도체 분야 특화 차원에서 산업기계과와 기계과를 '반도

체장비과'와 '반도체제조과'로 개편한다.

끝으로 줄포자동차공고는 자동차 정비 · 도장 전문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자동차과를 '오토테크장비과'와 '오토컬러도장과'로 각각 재구조화한다.

교육부는 이들 학과에 학급당 3억 7,500만 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각 학교는 교육과정 컨설팅, 실습실 환경개선, 교사 역량 강화 연수 등 학과 재구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3개 학

교가 전북글로벌컬특성화고에 이어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학과 재구조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도내 직업계고가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 전북에서는 올해까지 총 25개교, 33개 학과, 47개반이 선정돼 126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장은성 기자

차세대 전재소재의 미래 보인다

전북대 정광운 교수 연구팀, 고방열 저유전 고분자 소재 개발

전북대학교 정광운 교수(공대 고분자 나노공학과, 대학원 나노융합 공학과) 연구팀이 차세대 통신기술을 위한 '고방열 저유전 고분자 소재'를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정광운 교수



고혜운 대학원생



위영재 대학원생

실란/실록산 기능기를 활용, 옥타비닐실세스퀴옥산을 가교제로 도입한 3차원 고분자 네트워크를 설계했다. 이를 통해 1-10 GHz 대역에서 유전율 1.79, 유전손실 0.004 수준의 초저유전 특성과 0.89 W/m²·K의 높은 열전도도를 동시에 달성했다.

특히 연구팀이 개발한 저유전 소재는 재가공 및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층 진보된 환경친화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를 주도한 고혜운 · 위영재 대학원생은 “이번 연구는 절연 특성과 열 관리 성능, 재활용성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차세대 전자소재 설계 전략을 제시한 것”이라며 “고성능 재료 개발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전자소재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재료과학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18.5, 상위 4.1%)의 2025년 최신호에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발전위 구성… 교육 정상화해야”

전북교육연대, 교육감 권한대행에 요구

“전북교육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가칭)전북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지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연대)가 16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정상화를 위한 요구안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전북교육연대는 지난 3년간 학교는 학력신장보다는 행정 부담만 가중되고,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 등으로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불신만 쌓였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교육의 변화를 감당하는 현장의 요구를 담아 전북교육행정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먼저, 전북교육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가칭)전북교육발전위원회를 구

성해 시민사회와 협치하라는 것.

선출직이 아닌 교육행정 관료인 부교육감으로는 전북교육정책 전환에 일정한 한계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이에 교육시민사회와의 협치를 통해 시급한 사안부터 정책전환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의 즉각적인 인적 쇄신을 위해 한금수 정책국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한 국장은 서거석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외부 인사로 채용됐으며, 서 교육감이 퇴진한 지금 그의 사퇴는 당연한 순리라는 주장이다.

세번째로, 서 교육감 시기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철저한 감사를.

특히, 과학교육원 입찰비리 의혹, 해

외연수 특혜채용 의혹, 교육청 변호인단의 법률대응 의혹 등을 비롯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교육청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초등의 총괄평가를 학교별 자율적 평가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교입학제의 학교별, 지역별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지침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실습이 값싼 노동력 제공이 아닌 교육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의미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당장 교육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가칭)전북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민관협치의 모범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재 및 노화 · 노인성 질환 분야의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소재 · 노화 · 노인성질환 분야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전북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맞선’

연구과제 공동 수주 · 인프라 공동 활용기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양성광)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재 및 노화 · 노인성 질환 분야의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15일 대학본부 4층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양성광 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재 및 노화연구 분야의 도전적 연구과제 공동 수주 및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R&D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 물적 자원 교류, △연구 및 교육 관련 협력,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및 교육 지원, △해의 우수연

구자 초빙과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 운영, △국제 공동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양 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세계를 향한 연구거점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초과학은 응용과 산업을 견인하는 토대인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선도할 융합 연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력에 대한 현장 경험

전주에서 실천적 논의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오늘 제2회 교육포럼 개최

학력에 대해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한 실천적 논의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는 전북교육행복한동행과 공동으로 17일 오후 5시 30분 전주교대 사화관 4층에서 ‘전북의 학력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주제로 제2회 교육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기초발제와 초중등 현장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그리고 각급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력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학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진로교육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충북교육청 산하 학교현장의 새로운 학력신장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AI 교육의 미래 ‘한눈에’

전북 AI 리더शि 콘퍼런스

18일 고창교육지원청서 개최

AI 최신 기술 동향 등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과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와 영선중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기술을 넘어, 이해와 공존의 시대’를 주제로 한 전북 AI 리더शि 콘퍼런스가 오는 18일 오후 2시~4시 40분까지 고창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에 따르면 이번 콘퍼런스는 AI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과 AI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전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다.

특히 국내 대표 인공지능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AI 최신 기술 동향과 교육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

콘퍼런스에서는 △한글과컴퓨터 신

재교육 팀장이 ‘AI 기반 기업 서비스의 활용’을, △이드케이 정종균 부대표가 ‘AI 기반 기업 서비스의 활용’을, △Adobe 장정훈 부장이 ‘Adobe AI와 함께하는 교육 리더शि’를, △구글코리아 콜비 리가 ‘Google Gemini와 Google Reference School’을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미래교육연구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jbeduferi)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행사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070-4811-2501)로 문의하면 된다.

미래교육연구원 임정영 미래교육기획부장은 “이번 행사는 교직원의 AI 리더शि 인식을 제고하고, 윤리적 · 사회적 통찰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학교 · 지역사회 · 교육청 · 기업 간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AI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고창=김영식 기자

청렴문화 안착… 부패취약분야 특정감사

전북교육청,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공립 초 · 중 · 고 20곳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11일간 2025년 학교운동부 및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내 공립 초 · 중 · 고 교 2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부패 취약 분야인 학교운동부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교육 현장에 청렴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정감사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현장체험학습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점검사항은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 편성 및 집행 · 운동부지도자 관리,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계약 · 제안

서 평가, 보안 · 개인정보보호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적발이나 처벌 위주가 아닌, 시스템 개선과 보안을 통해 교육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가족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오는 8월 5일까지 불법찬조금, 금품 · 향응수수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학생 및 학부모 누구나 전북교육청 누리집 내 개설된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이홍열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신뢰받는 전북 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렴문화 안착을 위해 교육가족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사랑의장학회, 올 1500명에 총 5억원 지급

올해 장학생 선발 계획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랑의장학회를 통해 올해 초 · 중 · 고교 및 특수학교 학생 1,500여명에게 총 5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8% 늘어난 수치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해 학력신장 및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르면 장학생 선발은 △학업 우수 △보통 △재능우수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학업우수 장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선발 기준은 모의고사 성적과 학교장의 추천으로 이뤄진다.

이어 보통 장학생은 경제적 · 사회적 ·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을 대상으로, 재능우수 장학생은 전국 및 광역단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초 · 중 ·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지급된다.

특히 학업우수 장학금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발전 가능성을 독려하기 위해 1, 2차로 선발해 8월과 12월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장학생 선발은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8월중 최종 확정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업에 열의를 갖고 성실히 노력해 온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학업 우수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특수교육대상자에

진로진학정보 제공

전북교육청, 특수학교

전공과 · 대학입학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전주 치명자산상지 평화의 전당에서 '2026 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 전공과 및 대학 입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 특수교사 및 교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특수학교 전공과 및 대학 입학 전형(장애인 특별전형)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진학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원거리 거주자나 장애 여건 등으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해 개설한 온라인 줌을 통해서도 20여 명이 참여했다.

설명회는 총 2부로 운영됐다. 먼저 1부에서는 전주선화학교 권보미 교사가 전공과 입학 전형 안내 및 학교 운영 사례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2부에서는 입시 전문 사회적기업 김성일 대표가 '특수교육대상자 대학 전형의 이해와 진학 전략'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강의 후에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진학 고민에 대한 상담도 이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그동안 전공과와 장애인 대학 전형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와 방향을 제정, 준비 방법까지 알 수 있어 진로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장애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방향을 제공하는 유익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가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맞춤형 진로 · 진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